

IT/전기전자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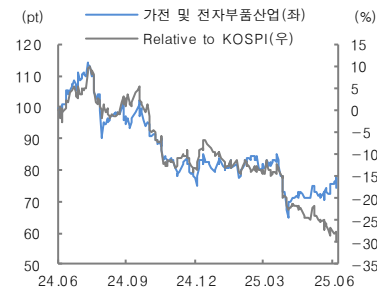
투자 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2	8.7	-5.8	-8.3
상대수익률	2.0	5.5	-9.5	-7.3



반도체 기판, 순환매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

-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
- 반도체 업종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출하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
- SOCAMM·GDDR7 수혜 기대 속 메모리 모듈 업체 추가 상승

원달러 하락으로 전기전자 중심으로 2Q 실적 하향 진행

6월 셋째주(16일~20일), 전기전자 업종내 대형 기업의 2025년 2Q 실적 프리뷰가 진행, 영업이익 기준의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IT기기의 수요 약화보다 5월, 6월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마진율 하락이 예상된다. 최근 LG전자와 LG이노텍, 삼성전기 등 2Q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율 하락의 영향이 존재하나 레거시(DDR4) 메모리의 가격 상승, 출하량 증가로 개선된 실적을 전망한다. IT 업종에서 스마트폰 관세 영향 및 최근 실적 하향 추세를 반영하면 반도체 중심의 비중확대 전략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지난 주에 언급한 2025년 2Q 실적 변화에 변수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절상)을 언급하였다. 2025년 1Q 평균환율(원달러)이 1,451원이나 6월 11일 기준으로 2Q 평균환율은 1,410.7원을 감안하면 2.76% 하락하였다. 월 기준으로 평균환율은 4월 1,441원에서 5월 1,390.1원으로 3.5% 하락 폭이 확대, 6월 평균(11일까지) 1,365원으로 하락이 확대되었다. IT기기 교체 수요가 약한 가운데 2025년 1Q에 진행되었던 관세 정책에 대비한 재고 축적이 2Q에 완화, 수량(Q)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원달러 환율의 약세로 가격(P) 하락 요인이 발생하였다. 불확실한 환경이 완화되지 않으면 2Q 실적 추정의 하향이 2025년 하반기 전망의 부담으로 작용, 추가적인 실적 하향도 7월 2Q 확정실적 이후에 예상된다.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 여력이 약할 요인이다.

2025년 6월 애플의 개발자 회의 내용도 주가에 긍정적이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AI와 시리의 연계가 늦어진 상황에서 아이폰 17도 통합적인 AI 솔루션 채택 여부가 불확실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스마트폰 25%, 미국내 판매 기준)도 아이폰 17 판매 호조에 부정적이다. 또한 미국이 50% 철강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파생제품 목록에 신규 품목으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추가 결정(6/23 시행),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전 사업 수익성에 부담으로 해석된다.

심텍, 티엘비 등 메모리 모듈 업체의 추가 강세

반도체 기판 중심의 주가가 2025년 6월 둘째주(09~13)에 강세를 보였다. 우선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추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 소램(SOCAMM)의 첫 공급사로 마이크론을 선정, 그리고 HBM4 샘플을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판 업체의 수혜가 부각되었다. 수혜 기업으로 심텍, 티엘비 등 메모리 모듈 업체가 해당된다. 심텍은 2025년 1Q 영업이익자를 기록하였으나 2Q에 흑자전환 예상된 가운데 SOCAMM, GDDR7 출하량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도주로 해석된다. 엔비디아가 중국향 AI 가속기 칩을 개발하면서 HBM 대신에 GDDR7 채택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티엘비는 심텍 다음으로 메모리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으로 확보, SOCAMM 생산 증가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반면에 연성PCB(비에이치, 인터플렉스)는 스마트폰에 관세 영향(미국 판매에 25% 관세 부과) 및 애플 아이폰17 판매 둔화 우려로 상대적 부진하였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박강호)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관련사항]

산업 투자 의견	기업 투자 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자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자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추가 변동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자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하락 예상

[투자의견 비율공시]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93.6%	6.4%	0.0%

(기준일자: 20250611)